

# 1980년대 이후 니트 패션의 조형성 연구

- 신체의 표현과 실루엣을 중심으로 -

최 광 돈\* · 금 기 숙\*\*

에프씨엔케이 대표\*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 교수\*\*

## A Study on the Formative Nature of Knitwear Fashion since the 1980s

- Focusing on Expression and Silhouette of the Body -

Gwang-Don Choi\* · Gi-Suk Geum\*\*

Director of FCNK\*

Professor, Dept. of Textile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10. 9. 29, 심사(수정)일: 2010. 10. 25, 게재확정일: 2010. 10. 27)

### ABSTRACT

An important change started in knitwear fashion in the 1980s. Advanced designers in Japan began to provide a new interpretation on knitwear, and seamless knitwear based on computerized machinery appeared. Knitwear fashion showed differences starting the 1980s due to this change. In this regard, the study aimed to analyze knitwear fashion after the 1980s where the contemporary knitwear experienced changes to define characteristics of modern knitwear fashion and examine its inherent formative nature. Designs for 30 years from 1980s up to date have been analyzed by 10 years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knitwear fashion over time. In particular,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odern knitwear fashion have been analyzed in more depth with a focus on the period from 2001 through 2010 by narrowing the whole period. Insufficient domestic literatures and visual materials led the study to mostly use foreign books and internet sites. Insights of 7 professionals who have engaged themselves in knitwear industry over 10 yea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is study, which will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formative analysis. As a result, the data have been organized into three tools of analysis, including exposed bodies, transformed bodies and natural bodies from the perspectives of expression and silhouette of body, and the features of flexibility, industrial artistry, innovation and sensuality have been highlighted in terms of formativeness. In this regar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ormative nature found in the knitwear fashion exists in the scope of the formative nature in the embryonic period of the knitwear fashion. It means that the formative nature of knitwear fashion contains perpetuity that transcends an age.

Key words: expression of the body(신체의 표현), flexibility(유연성), industrial artistry(공예성), innovation(혁신성), sensuality(관능성)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니트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였다. 인간의 최초 도구인 양손을 응용하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의 줄기 등을 엮기 시작한 것을 니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수천년 전부터 존재한 니트를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은 중세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당시 유럽의 문화와 패션을 주도했던 국가의 귀족들이 호화스러운 실크양말을 착용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단품에 머물러 있던 니트웨어가 패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Bonheur Chanel: 1883~1971)이나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1890~1973), 장 파투(Jean Patou: 1888~1936) 등과 같은 현대 패션의 선구자들이 니트를 그들 디자인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부터이다. 샤넬의 저지 투피스나 스키아파렐리의 눈속임 기법 스웨터, 파투의 스포츠 스웨터는 모두 니트로 제작되었고 이들 디자이너를 주목받게 만든 아이টে이다.

이후 몇몇 디자이너에 의해 패션에 응용되던 니트웨어는 70년대에 미소니(Missoni)와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 1930~) 같은 니트 전문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니트웨어가 본격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니트 패션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1980년대 이후 니트 패션에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일본의 진보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니트웨어를 디자인 하는 관점이 다양한 시각으로 넓혀졌고 둘째, 컴퓨터 시스템의 응용과 새로운 소재에 대한 도전으로 기존에 제작되던 니트와는 차별화된 니트웨어가 등장하였으며 셋째, 신체의 해방과 스포츠 캐주얼 시장의 확대에 따라 신축성, 실용성 등과 같은 니트의 특성이 다시 주목 받으면서 패션 아이টে으로 니트웨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니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 니트 패션에 큰 변화를 가져

온 1980년 이후의 니트웨어를 조사하여 시대별 특성을 규명하고, 현대 니트 패션에 내재된 조형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니트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sup>1)</sup>를 살펴보면 결코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만, 연구의 대부분이 디자인 유형이나 편직 기법에 따른 특성 연구, 작품 제작을 위한 분석의 도구 등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현대 니트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아직 미비하다고 판단되었다. 때문에 본 연구는 니트 패션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패션 아이টে으로 등장한 이후 불과 한 세기 만에 많은 디자이너 컬렉션에 응용되고 있는 니트웨어의 확장성을 확인하고, 니트 패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시대별 니트 패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의 디자인을 1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분석된 니트 패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III, IV장에서는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2001~2010년까지 10년간으로 시대적 범위를 좁혀 진행하였다. III장에서 디자인의 조형 요소 중 신체의 표현 형태와 밀접한 실루엣을 연구의 관점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1980년대 이후 니트 패션의 조형요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실루엣에 따른 신체의 표현 형태이며 둘째, 니트만의 고유영역인 니트 조직의 물리적 특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실루엣이기 때문이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조형성을 각 조형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고찰하여 현대 니트 패션에 내재된 조형성이 어떤 지속성과 한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21세기 니트 패션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았다.

문헌자료는 국내의 자료가 관련서적의 부재로 인하여 논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원서나 구글([www.google.com](http://www.google.com)) 등 해외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시각 자료는 1980~2000년까지의 자료는 원서

를 활용하고, 2001~2010년에 이르는 기간의 자료는 인터넷 사이트 퍼스트 뷰(www.firstview.com)와 스타일닷컴(www.style.com) 등의 컬렉션에 발표된 여성 니트웨어의 사진자료와 현업에서 구독하는 전문 정보지를 통하여 1차적으로 3800여장의 시각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배제하였고, 하나의 디자인이 2~3개의 조형요소와 중첩되는 경우는 우선성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차적으로 2170장의 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년 이상 니트 패션의 현업에 종사한 전문가 7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형성 분석을 위한 신체 표현 유형의 관점을 정립하였다.

## II. 니트 패션의 시대별 특성

### 1. 1980년대: 니트의 새로운 해석

1980년대는 니트웨어가 과거의 관습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시기이다. 이것은 파리에서 활동한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작 되었으며, 다양한 나이와 체형의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파리에서는 이들 디자이너에 의한 서구 의상의 재해석으로 커다란 충격과 함께 새로운 복식 미학이 논의 되었다. 이세이 미야케(Issay Miyake: 1938~),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1943~), 쫘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디자인은 아방가르드한 니트 패션의 시작이 되었고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1957~), 앤 드뮐미스터(Ann Demeulemeester: 1959~) 등의 벨기에 출신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981년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1942~)가 파리에서 첫 컬렉션을 열었을 때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비평은 악평과 호평으로 분리되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작품의 근본원리가 파괴가 아닌 긍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디자인이 오늘 날 우리에게 별로 놀랄 만한 형태가 아니라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녀의 높은 성찰에 기인한다.<sup>2)</sup> 쫘므 데 가르송이 1982년 F/W에 발표한 레이

스 스웨터(lace sweater) <그림 1><sup>3)</sup>는 일부러 구멍내고 찢어지고 해진 상태로 제작하여, 파괴와 해체의 미학을 전달하고 있으며 의복에 대한 그녀의 철학을 보여준다. 고의로 구멍을 낸 핸드 니트웨어는 기계 니트웨어의 흠 없이 완벽한 제작에 대한 반발이며, 창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결점을 포용하는 일본 문화의 단면을 대변한다.<sup>4)</sup>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패션계에 변혁을 가져온 또 한명의 디자이너는 요지 야마모토이다. 옷은 반드시 호화스러워야 한다든지 또는 품위를 갖춰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유럽 패션계에 서민적인 정취가 배어 있는 디자인을 제안해서 충격을 주었다. 1984년 F/W에 발표한 롱 슬리브 스웨터 <그림 2><sup>5)</sup>는 고급 기성복의 옷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성별조차 불확실한 디자인으로 빈자스타일(pauvre look)을 추구하는 그의 철학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 이세이 미야케가 발표한 타투바디(tattoo body) <그림 3><sup>6)</sup>는 1971년 그가 뉴욕 테뷔 컬렉션에서 발표 하였던 보디 타이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신축 소재로 짜여진 니트 위에 지미 헨드릭스(James Hendrix) 같은 연주자들의 얼굴을 타투 형식으로 프린팅하였던 당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신축성이 뛰어난 화학 섬유인 니트 위에 인류가 태고부터 행해온 장식 표현의 방법인 타투 형태의 보디 페인팅을 프린팅하였다. 신체의 곡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담하고 관능적인 표현으로, 마치 의복을 착용하지 않고 원시시대의 보디 페인팅을 연상시키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 2. 1990년대: 하이테크의 응용

1990년대 말에는 진보된 컴퓨터 시스템을 응용한 이세이 미야케의 A-poc(A piece of cloth)와 전문적인 컴퓨터 니트 기계 회사에서 개발한 무봉제 니트(seamless knit)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기계 시스템에서 생산되던 니트와는 전혀 다른 니트웨어가 등장하였다.<그림 4><sup>7)</sup>

“나는 늘 한 장의 네모난 천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옷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세이 미야케의 말처럼<sup>8)</sup>, 그의 디자인 출발점은 ‘한 장의 천’에

<표 1> 1980년대 이후 니트 패션의 시대별 특성

시대	특성	디자인 분석		
1980년대	니트의 재해석 전위와 해체 신체에 대한 관심			
		<그림 1> Comme des Garçons, 1982. <i>Icons of Fashion</i> , 1999, p.126	<그림 2> Yohji Yamamoto, 1984. <i>Yohji Yamamoto</i> , 1997, p. 18	<그림 3> Issey Miyake, 1989. <i>ファッション(18世紀から現代まで)</i> , 2002, p. 645
1990년대	하이테크놀로지 무봉제 니트 (seamless knit) 진화된 소재 기능성의 추구			
		<그림 4> Issey Miyake A-poc, 1999. <i>Vision of body</i> , 1999, p. 91	<그림 5> Caterina Radvan, 1998. <i>Knitwear in fashion</i> , 2002, p. 90	<그림 6> Wolford Starck Dress, 1998. <i>The Classic of Fashion</i> , 2001, p. 21
2000년대	건축적인 실루엣 구조적 디테일 확장과 왜곡 신체와 의복의 불일치			
		<그림 7> Sandra Backlund, 2009 S/S (www.sandrabacklund.com)	<그림 8> Alexander McQueen, 2000 F/W <i>Knitwear in fashion</i> , 2002, p. 90	<그림 9> Guy Laroche, Paris, 2010 F/W

있다. 그래서 A piece of cloth의 조두문자 A-poc는 그의 디자인 철학이 함축되어 있다. 긴 튜브 형태로 짜여진 니트 패브릭에 드레스, 셔츠, 스커트 등을

프로그램화하여 컴퓨터 기계로 편직한 후, 구분 지어진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내어 착장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대량 생산에도 용이하고 동시에 어떠한 체

형에도 피트 되는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으로 21세기 패션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sup>9)</sup>

A-poc와 함께 90년대 니트 패션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결과물은 무봉제 니트의 등장이다. 재단과 봉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신속성, 경제성 대량 생산성의 산업적인 장점이 있으며, 디자이너의 작업 방식에 따라 감성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카테리나 레드번(Caterina Radvan)의 작업방식은 니트의 드레이프성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다. 1998년에 발표한 그녀의 디자인 <그림 5><sup>10)</sup>은 램스울(Lambswool)과 나일론 모노 필라멘트의 이중 구조로 편직된 의복을 울 세탁하여 램스울은 펠트(felt)화 시키고, 나일론으로 편직된 부분은 주름진 형태의 여유 있는 층을 형성시켜서 마치 각각 편직된 두 겹의 의복을 착장한 효과를 내고 있다.

80년대 말부터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다듬어진 신체를 과시하기 시작하였고 60년대에 유행한 보디 콘셔스(body conscious)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였다.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이다”라는 샤넬의 말처럼 초현대적 리틀 블랙 드레스는 제 2의 피부를 필요로 하는 날씬한 여성을 위하여 유명 건축가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 1949)이 울포드(Wolford) 하우스의 1998년 컬렉션에서 선보인 원피스 드레스이다<그림 6><sup>11)</sup>. 팬티스타킹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멜빵이 달린 신축성 있는 드레스로서 필요에 따라 미니 또는 맥시형 드레스로 변신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크기로 돌돌 말려서 작은 핸드백 속에 넣을 수 있는 미래형 디자인이다. 급속히 진화한 스트레치 소재를 이용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활동의 제한을 최소화 시켜 기능적이기까지 하다.

### 3. 2000년대: 구조적 실루엣의 표현

21세기의 니트웨어는 컴퓨터 미학에 대한 반발로 수공예에 의한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어긋나고 균형이 맞지 않지만 우아하고 미래적으로 보이는 것, 키치스럽지만 고급스러운느

낌이 있는 것 같은 극단적인 요소의 화합을 요구한다. 이것은 하이브리드(hybrid)로 지칭되는 사회 문화 트렌드가 패션에 접목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축적인 실루엣과 구조적인 디테일을 이용하여 때로는 모던하게 때로는 클래식하게 그리고 때로는 우아하게 표현되고 있다.

상업적인 이유보다는 예술로의 접근을 위해 작업하는 산드라 백룬드(Sandra Backlund)는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니트 디자이너이며,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으로 예상치 않는 재료들을 가지고 3차원적인 니팅을 시도한다.<sup>12)</sup> 실용적인 것 보다는 인간의 신체를 강조하는 디자인에 매혹되었다는 그녀의 표현대로, 그녀의 디자인 <그림 7><sup>13)</sup>에서는 신체와 관계없는 곡선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신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쇼는 장대한 스펙타클을 창조하며, 연극이나 뮤지컬을 능가한다. 이런 연출 하에 나타나는 그의 극단적인 디자인은 실제적인 사이즈보다 더욱 거대하게 인식된다. 2000년 F/W에 발표된 터틀넥 풀오버 <그림 8><sup>14)</sup>는 과장된 스케일로 인체의 프로포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실루엣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기 라로쉬(Guy Laroche)의 가디건 스웨터 <그림 9><sup>15)</sup>는 과거에 표현되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인해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섬유 작가의 조형작품을 연상시킨다. 소매와 등판은 기본 조직으로 되었지만 앞판은 변형 조직으로 구성하여 구조적이고 미래적인 혁신성을 나타낸다.

## Ⅲ. 니트 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표현과 조형성

패션은 옷을 통해 표현되고 발휘되는 사회적 행위의 보디 테크닉(body technic)으로 여겨진다.<sup>16)</sup> 특정한 보디 테크닉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조명되고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미지는 패션이 어떤 조형 요소를 활용하는가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체와 중요한 관계가 성립된다.

의복의 실루엣은 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신체를 기초로 한다. 니트는 우븐에 비해 평면적 요소가 강해 실루엣에 있어 우븐 디자인만큼 다양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니트가 가지고 있는 드레이프성은 같은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신체에 의지한 유기적인 곡선을 이루는 실루엣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나는 신체의 표현 형태를 II장에서 분석된 니트 패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분석해 보면 첫째, 니트 고유의 특성인 신축성, 하이테크놀로지의 결과물인 고기능 스트레치 소재에 의한 밀착성, 니트의 조직에서 오는 투영성 등에 의해 나타나는 '노출된 신체'의 형태가 있고 둘째, 1980년대부터 시작된 니트 패션의 재해석에 의한 결과물과 2000년 대에 등장한 구조적 실루엣에 의해 나타난 왜곡과 전위, 확장과 과장 등의 요소가 보이는 '변형된 신체'의 형태가 있으며 셋째, 니트 패션 태동기부터 응용된 유연한 드레이프성에 의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신체'의 형태로 분석되었다.

## 1. 노출된 신체

니트 패션에서 신체가 노출되는 경우는 수영복과 보디슈트처럼 신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직접적 노출'과 조직의 투영 효과나 유연성에 기초하여 관능성을 유발하는 '은유적 노출'의 형태로 나타난다.

니트웨어가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한 20세기 초에 니트의 신축성을 응용하여 디자인한 수영복처럼, 신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실루엣의 출현은 여성 해방에 의해 속옷이 표면화된 한 사례이다. 1910년대 니트로 제작된 원피스 수영복의 등장과 1940년대 니트 저지로 만든 비키니 수영복이 발표된 이후 수영복은 속옷의 형태를 띤 겉옷의 영역 하에 있다. 20세기 초의 니트 수영복은 실질적으로 수영복의 기능을 하였지만, 탄성섬유가 응용된 수영복의 등장 이후 현재의 니트 수영복은 해변에서의 비치웨어 기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 다른 방식(의복이 제 2의 피부로 신체와 밀착되어)으로 신체가 직접 드러나는 보디 슈트는, 1940년대에 클레어 맥카텔이 저지를 이용하여 최초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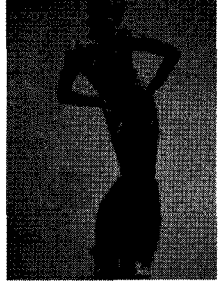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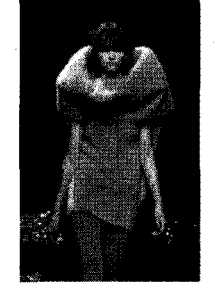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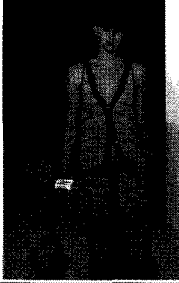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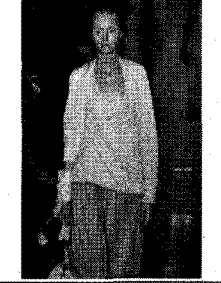
원형이 나타났으며, 1960년대의 루디 게른라이히와 1980년대의 조르조 디 산탄젤로(Giorgio Armani: 1933~1989)에 의해 발전되었고 도나 카란(Donna Karan: 1948~)에 의해 대중화 되었다. 맥카텔과 게른라이히가 레오타드와 같은 개념으로 보디 슈트를 전개했다면, 산탄젤로는 듀폰(Dupont)사와 함께 최신의 기술로 탄생한 라이크라 섬유를 사용하여 신체와 더욱 밀착되는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여 제 2의 피부로 접근 시켰고 도나 카란은 섹시하면서 실용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발전 시켰다. 울과 아크릴, 실크 등 모든 섬유가 양방 스트레치 가능하게 편직되고, 이러한 신축성에 기초하여 신체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옷을 입는 방법에 있어 과거와 다른 착장 법을 가져 왔다.<sup>17)</sup>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 1971~)의 새롭게 변형된 보디 슈트 <그림 10><sup>18)</sup>는 이전의 디자인에 비해 외출복으로 영역이 확대된 경향을 보인다. 고신축 섬유로 제작되어 어깨를 드러내거나 감싸는 어떤 형태에서도 실루엣이 유지 될 수 있고, 테이프를 두른 듯한 표면효과로 단순한 속옷의 느낌에서 벗어나 있다. 누드 톤의 색상으로 드러난 신체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도발적인 관능성을 보인다.

몸을 감싸는 의복 안에서 신체의 곡선을 방해하지 않고 드러나는 실루엣은 니트의 유연성으로 극대화되며, 우아하고 신비한 관능성을 나타낸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1969~2010)의 실크 저지를 이용한 디자인 <그림 11><sup>19)</sup>은 유연한 저지 안에서 드러나는 가슴이 직접 노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밀스러운 요소가 자극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몸을 감추는 정숙함과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심리적 노출증의 또 다른 표현으로 퇴폐적이기 보다 당당한 여성성의 표출로 보인다. 은유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완전히 노출 되는 것보다 노출과 은폐, 정숙설과 비정숙성, 퇴폐와 고상함의 양면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더 에로티시즘을 자극한다.<sup>20)</sup>

신축성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표현된 보디 컨서스한 라인과 변형된 그물 조직 사이로 드러나는 신체를 통해 이중의 노출 효과를 보이는 마크 패스트

<표 2> 니트 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표현과 조형성

신체의 표현	특성	디자인 분석		
노출된 신체	은유적 에로티시즘 당당한 여성성 신체의 해방 밀착된 피부 관능성, 혁신성			
		<그림 10> Stella McCartney, Paris, 2009 S/S	<그림 11> Alexander McQueen, Paris, 2002 F/W <i>Gap Press</i> , 2001, p. 141	<그림 12> Mark Fast, London, 2010 S/S <i>BAZZAR</i> , 2009. 12, p. 256
변형된 신체	구조적 실루엣 확장과 왜곡 신체와 의복의 불일치 핸드 니팅에 의한 입체적 표현 혁신성, 공예성			
		<그림 13> Byblos, Milan, 2008 F/W	<그림 14> Martin Margiela, Paris, 2008 F/W	<그림 15> Yohji Yamamoto, Paris, 2003 S/S
자연스러운 신체	신체의 보완 단순화된 형태 우아한 여성성 신체에 의지한 실루엣 유연성, 관능성			
		<그림 16> Fendi, Milan, 2005 S/S	<그림 17> Oscar de la Renta, New York, 2004 S/S	<그림 18> Jill Stuart, New York, 2009 S/S

(Mark Fast)의 디자인 <그림 12><sup>21)</sup>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한 사이즈의 옷을 다양한 체형의 빅 사이즈 모델에게 입혀 진행한 2010년 S/S 컬렉션에 발표된 옷으로 사이즈에 대한 니트의 유용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니트의 유연성으로 드러나는 신체, 변

형조직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신체, 신축성으로 인해 밀착되어 나타나는 신체 등으로 표현되는 '노출된 신체'에서는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는 관능성과 관습을 초월하는 혁신성이 나타나고 있다.

## 2. 변형된 신체

1980년대 이후 니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적 구조주의, 전위와 병치 등의 현상은 실루엣에 있어 확장과 왜곡의 현상을 보인다.

허정선은 그의 논문<sup>22)</sup>에서 패션 아트와 신체 공간의 유형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미지로 신체공간이 외부의 주변 환경으로 확대되는 확장의 이미지를 제기 하였다. 니트 패션의 실루엣에서 보여 지는 확장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여, 확대된 형태의 디자인은 신체가 왜곡 되거나 과장되어 보인다. 비블로스(Byblos)의 디자인 <그림 13><sup>23)</sup>은 모델의 어떠한 포즈에도 변형이 되지 않는 정형화된 공간이 확보된 실루엣으로 핸드 니팅에 의해 제작된 여밈이 없는 코트 형태 디자인이다. 벌키(bulky)한 울 방모 원사를 사용하여 조직 간의 공간을 메워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간의 점유는 니트의 고리(loop) 조직에 의해 발생된다. 허리는 날씬하게 소매는 풍성하게 강조해 주고, 높은 허리 라인으로 인해 하체의 길이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나며 핸드 니팅에 의한 공예성으로 실험적이고 미래적인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다.

2001년에 마틴 마르지엘라에 의해 발표된 비현실적인 사이즈의 과장된 가디건 스웨터는 실제로 착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 가디건의 소매는 암홀의 안쪽 반까지 내려와서 봉제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2008년 F/W에 발표한 마틴 마르지엘라의 디자인 <그림 14><sup>24)</sup>은 터틀넥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극대화 시킨 네크가 목을 감싸는 역할에서 벗어나 어깨를 감싸며 캡 소매의 형태를 취한다. 인체의 비례를 무시한 디자인으로 어깨 넓이와 상·하의의 개념이 사라진 디자인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개념에 대한 저항적인 혁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요지 야마모토의 2003년 S/S 디자인 <그림 15><sup>25)</sup>은 서양 옷에 대한 미의식을 바꿔 놓은 그의 철학이 나타나고 있다. 아방가르드한 실루엣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로 그의 등장 이전에는 이와 같은 디자인의 개념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포브르 룩의 창시자답게 화려함보다는 순수함을 기본으로 의복의 구성을 재

해석하였으며 몸의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을 보인다. 소매의 길이를 필요 이상으로 확장시켜 신체의 프로포션을 변화 시켰으며, 이처럼 변형된 디자인은 일상적인 착장과 습관적인 창작 과정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와 같이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변형된 신체'에서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혁신성과 수공예의 의한 입체적인 표현에서 오는 공예성이 나타나고 있다.

## 3. 자연스러운 신체

니트 패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실루엣은 자연스럽게 신체를 감싸주는 단순화된 형태이다. 전통적인 니트 패션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신체의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 자연스러운 윤곽선을 보이는 것으로 의복 안에 숨겨진 신체의 선을 따라 우아함이 나타난다. 니트가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한 가장 큰 이유도 이처럼 니트의 유연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그로 인해 전달되는 은밀한 관능성의 효과에 기인한다.

2005년 S/S에 팬디(Fendi)에서 발표한 롱 베스트 형태의 원피스 <그림 16><sup>26)</sup>는 단순하고 깔끔한 직선형 실루엣으로 우아하면서도 기능적인 조형성을 나타낸다. 버튼으로 전체를 오픈할 수 있는 디자인은, 몇 개의 버튼을 오픈하고 무엇과 레이어드 하느냐에 따라 직선형 실루엣이 아닌 변형된 형태의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니트의 단품에서 가장 기대 효과가 높은 기본 폴 오버 스웨터도 단순하지만 신체와 호흡하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한다.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 1932~)의 디자인 <그림 17><sup>27)</sup>에서 나타나듯이, 실루엣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품위와 순수함을 보여준다. 모든 아이템을 니트만으로 구성한 질 스투어트(Jil Stuart: 1965~)의 2009년 S/S 디자인 <그림 18><sup>28)</sup>은 내추럴리즘을 컨셉으로 하는 그녀의 의지처럼 착장자나 관찰자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실루엣이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박스형의 여유 있는 디자인이지만, 신체를 따라 흐르는 듯한 유연함으로 품위 있고 정숙한 여성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신체에 의지한 실루엣이 표현되는 '자연스러운 신체'에서는 니트의 유연성과 이로 인해 유도되는 관능성이 나타난다.

#### IV. 현대 니트 패션의 조형적 특성

##### 1. 공예성

21세기에 접어든 현재는 근대 사회를 탄생 시켰던 기계 미학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이 테크놀로지에 의한 디지털화가 우리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이 테크놀로지에 의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상황은 19C의 기계 미학 시대와 닮아 있으며, 이 같은 기계화에 의한 획일성, 대중성은 기계에 대한 반감을 가져오면서 니트 패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이것은 1860년대 산업 혁명의 기계화가 서구 사회를 본격적으로 지배하던 시절, 기계에 의한 물건 만들기에 반대하면서 '손'에 의한 물건 만들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의 미술 공예 운동과 비슷하다. 그는 디자인을 일상생활 환경과 관련된 사상의 문제로 포착하고, 디자인이 인간의 감성과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근대 디자인의 선구자이다.<sup>29)</sup> 그에게 있어 공예 예술은 디자이너가 자율성을 갖고 기계주의에 대한 의존을 배격하고 제조 과정에 철저히 참여하는 예술<sup>30)</sup>이었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기쁨을 느끼는 작업으로 이해됐다.

20세기말 패션은 아시아권의 경제 성장 정책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 할 수 있었고, 때문에 기술집약적이면서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섬세한 수공예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고 기계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니트패션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 <그림 19><sup>31)</sup>은 일반적으로 이브닝드레스에 표현되는 정교한 비즈 작업을 캐주얼한 가디건에 완성시켰다.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현대의 소비 시장은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하지만 디자인의 무단 복제가 일상

화 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소비 욕구는 수공예 작업에 의한 회소가치로 나타난다.

가능하지 않은 방법들을 가능하게 하는 수공예적 과정을 즐기는 산드라 백룬드의 디자인 <그림 20><sup>32)</sup>은 신체를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게 한다. 실용적인 것, 상업적인 것 보다는 예술의 표현 방법으로 니트 패션을 선택한 그녀의 작품에서는 수공예에 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에서 생산된 것과 유사한 완벽함이 나타난다.

현대에는 패션쇼가 단순히 디자인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 관객의 주의를 끄는 이벤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소니아 리키엘의 2009년 S/S에 나타난 디자인 <그림 21><sup>33)</sup>은 유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손뜨개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니트 패션의 근원을 보이고 있다.

##### 2. 관능성

인간에게 있어 노출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吉本隆明은 노출에 관해서 "현대의 여성이 수영복이나 속옷 차림으로 미개인이나 원시인 같은 누드 모습을 취하고 그것이 잡지의 커버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신체 자체를 의상 혹은 패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개인이나 원시인 같이 나체로 보이지만, 진짜는 전혀 반대의미를 지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의 의상이 신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4)</sup> 남후남은 그의 논문<sup>35)</sup>에서 "이상적 인체를 추구하는 현대 패션의 경향으로 인하여 관능성은 그 의미가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기존의 신체에 대한 의식이 노출로 표현되었다면, 현대의 신체에 대한 의식은 과시로 나타난다. 이제 현대인의 관심은 늘려진 신체, 다듬어진 신체, 이미지에 따른 허상의 신체를 이상적인 인체로 받아들이고 다이어트, 운동, 성형 수술의 힘을 빌려 이상적 인체를 소유하려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과시의 대상이 되어 노출된 신체 자체를 패션화 시키고 있다.

울포드(Wolford)의 2001년 컬렉션에서 발표된 디

자인 <그림 22><sup>36)</sup>은 누드 톤의 섬세한 그물 조직위에 대담한 리본 무늬를 검정색으로 편직한 스토킹이다. 역시 같은 기법으로 표현된 보디 슈트와 세트 물로 디자인 되었으며 투명한 누드 톤은 마치 몸에 커다란 리본을 두른 듯한 착시 효과를 가져 온다. 신체 전체에 의복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대부분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대담한 관능성이 나타난다.

니트 패션에서의 관능성은 니트 특유의 조직과 관련이 크다. 니트웨어의 소재는 성분상으로는 우븐과 동일하지만 어떤 조직으로 형성 되었는가에 의해 다양한 조형성이 표출된다. 특히 레이온이나 실크처럼 드레이프성이 좋은 소재는 니트의 조직으로 표현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 관능성이 잘 나타나는 조직은 그물(net) 조직이다. 니트의 태동기에 어부들이 그물을 엮어서 어망을 만드는 기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편직된 그물 조직은 착용을 함으로써 더욱 에로틱한 관능미를 유발한다. 세린느(Celine)가 2006년 F/W에 발표한 디자인 <그림 23><sup>37)</sup>은 변형된 그물 조직으로 에로티시즘을 유발 한다. 소매와 넥, 허리단의 고무 조직부분이 그물 조직과 대조를 이루며 흩어진 감정을 정리해 주고 있다. 기하학적으로 도안된 조직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신체는 관찰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능성을 나타낸다.

대담한 노출은 기존의 도덕관념이나 가치 체계에 대한 반항인 동시에, 인체에 대한 시선 집중으로 자연스럽게 인체를 패션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의복의 착용 동기중 비정숙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의복을 입지 않음으로서가 아니라 옷을 입음으로써 성적 관심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분적인 노출이나 신체가 비치는 의복의 착용, 밀착된 의복을 통한 신체의 곡선 등은 직접적 노출보다 더욱 관능적으로 느껴진다.<sup>38)</sup>

랄프 로렌(Ralph Lauren)의 디자인 <그림 24><sup>39)</sup>은 얇게 짜여진 니트의 조직 뒤로 시스루(see-through) 효과에 의한 은밀한 관능성이 나타나며, 색채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관능성이 더해져서 더 강렬한 에로티시즘을 유발하고 있다.

### 3. 혁신성

1910년대에 니트웨어가 상류층의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한 것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혁명이었고, 저급한 니트를 고급 아이템으로 받아들인 관념의 전환이었다. 이후 1980년대 일본의 진보적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에 의해 또 다른 니트 패션의 변혁이 일어났다. 축소되거나 과장된 프로포션, 접히고 비틀리고 늘어진 소재, 의복의 안과 밖의 혼동, 마무리 되지 않은 가장자리 등은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법에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량 생산에서도 나타나는 미가공 상태의 표현이나 의미 없는 파괴나 장식들은 비록 디자이너의 의지가 암호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충격을 주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sup>40)</sup> 때문에 21세기에는 좀 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니트 패션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실루엣에 있어서의 혁신성은 컴퓨터 기계의 발달에 의해 지속적인 가능성을 보인다. 과거의 평면적인 조직들이 입체적인 조직으로 표현되면서 구조적인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핸드 니팅에 의해 표현되는 혁신성은 더욱 건축적인 입체감으로 나타난다. 손으로 떠서 편직했다는 표현보다는 엮어서 제작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대담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굴곡과 입체감으로 미래적인 실루엣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된 실루엣은 옷은 반드시 신체를 상가시키는 조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게 한다. 물론 이전의 진보적인 디자이너들이 신체를 의식하지 않는 전위적인 디자인으로 기존 관념에서 이탈된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최근 들어 발표되는 디자인들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미래적인 구조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의복과 신체 조형의 불일치를 나타내지만, 역설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신체를 상가시키고 있다. 산드라 백룬드의 디자인 <그림 25><sup>41)</sup>도 같은 선상에 있다. 공상 과학 영화의 의상을 연상시키는 독창적인 실루엣은 구조적 입체감으로 인해 극대화 되고 있다. 표현 기법을 예측할 수 없는 디자이너의 실험적 태도와 노력의 결과물로 향후 니트 패션의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니트 패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봉제 니트(seamless knit)의 등장이다. 무봉제 니트 편

직의 개념은 박물관에서 보여 지는 5~6세기의 이집트 양말 조각과 같이 고대부터 존재하였지만, 기계에 의한 무봉제 편직은 1965년 일본의 시마 세이키(Shima Seiki)사에서 개발한 작업용 장갑에서 시작되었다. 시마 세이키와 함께 니트 컴퓨터 기계 시장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독일의 스톨(Stoll)사에서 제안하는 디자인 <그림 26><sup>42)</sup>은 두 칼라가 동시에 니팅 되었고, 우븐의 닥트처럼 내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치수가 조절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네크라인과 암홀 마무리만을 요구하는 무봉제 니트에 의한 혁신성이 나타난다. 레이온에 스판덱스(spandex)를 섞어서 편직한 마틴 마르지엘라의 디자인 <그림 27><sup>43)</sup>은 패턴에서의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의복과 신체 조형의 불일치를 보이는 패턴이지만 소재의 유연성과 신축성으로 인해 착용 시에도 전혀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존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진보된 패턴 기법으로 변화시켜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 4. 유연성

20세기 초에 실현된 코르셋에서의 자유는 패션과 신체에 대한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의복을 위한 성형 수단으로 코르셋, 크리놀린 등에 의지해 자신의 신체를 은폐하고,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패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신체는 의복에 존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도구에 의해 성형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신체를 인식하면서 신체의 재발견이 나타났다. 이것은 의복과의 관계에 있어 신체가 주체가 된 패션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다.

바로 이 시기에 니트 패션이 등장하였다. 초창기 니트 패션은 직사각형의 간결한 실루엣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니트의 유연성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의 선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과거의 고정된 신체의 기능과는 달리 움직임의 주체로서 신체의 기능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니트 패션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1910년대의 샤넬, 40년대의 클레어 맥카펠, 70년대의 소니아 리키엘 그리고 현재의 프라다(Prada)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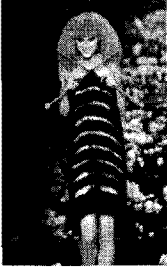









이르기까지 시대의 전환기에 니트를 패션 디자인에 응용한 디자이너들은 모두 니트의 유연성에 주목하였으며, 그들 모두 여성 디자이너이다. 이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복, 즉 결점은 감추고 아름다움은 드러내는 실용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반면 남성 디자이너들은 여성을 미화 시키는 디자인에 치중하기 때문에, 여성이 디자인 하는 의복은 덜 장식적이며 자연스런 실루엣을 중요시한다.<sup>44)</sup> 여기에는 '기능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스러워야 하는' 패션 육구의 이중성을 해결할 아이템으로 니트웨어를 선택한 이유도 있다.

니트의 유연성은 행동하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우아한 여성을 완성 시킬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다. 이와 같은 현대 여성의 삶의 방식에 관한 이중적 육구는 샤넬이 말한 "현대 여성은 낮에는 애벌레가 되어야 하고, 밤에는 나비가 되어야 한다. 즉 낮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활동적이고 편안한 의상이 필요하고, 밤에는 매력적이며 우아한 옷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와 일치한다.<sup>45)</sup>

얇게 편직된 니트의 뛰어난 드레이프성은 우아한 여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며, 유연하고 자유로운 곡선에서 시각적, 정신적인 평온함이 느껴진다.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에 의해 발표된 원피스 드레스 <그림 28><sup>46)</sup>는 단순한 직사각형 실루엣의 슬리브리스 터틀넥이 원피스로 변환, 장식 없는 심플한 디자인은 깊게 파인 암홀과 트렌드 컬러로 보완하였다. 유연한 드레이프성으로 신체의 선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며, 움직임에 있어서 주체화 된 신체를 강조하고 있다.

니트 패션의 유연성은 전통적인 소재인 울(wool)이나 코튼, 실크 저지에서서부터 시작되었다. 니트 패션의 태동기에 등장한 다양한 소재의 저지는 유연한 드레이프성으로 인하여 신비롭고 품위 있는 여성성을 대변하였다. 이후 기술의 발달과 디자이너들의 실험적 도전으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성과가 나타났다. 이 외에 유연체와 후가공 효과에 의해 변화된 소재의 물성 등에서 유연성을 느낄 수 있다. 그레이 멜란지의 저지를 이용하여 디자인된 롱 드레스 <그림

<표 3> 현대 니트 패션의 조형성

조형성	특성	디자인 분석		
공예성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발 긴장된 삶의 일탈 수공예적 표현 주목받는 핸드니팅			
		<그림 19> Alexander McQueen, Paris, 2005 F/W	<그림 20> Sandra Backlund, 2009 S/S <a href="http://www.sandrabacklund.com">www.sandrabacklund.com</a>	<그림 21> Sonia Rykiel, Paris, 2009 S/S
관능성	신체노출의 패션화 은유적 관능 직접적 노출 밀착된 신체 (제 2의 피부)			
		<그림 22> Wolford, 2001 S/S, <i>Knitwear in fashion</i> , 2002, p. 60	<그림 23> Celine, Paris, 2006 F/W	<그림 24> Ralph Lauren, New York, 2004 S/S
혁신성	컴퓨터 시스템의 응용 (무봉제 니트) 진화된 소재 구조적 실루엣 관념의 전환			
		<그림 25> Sandra Backlund, 2008 F/W <a href="http://www.sandrabacklund.com">www.sandrabacklund.com</a>	<그림 26> Stoll, 2001 <i>Knitwear in fashion</i> , 2002, p. 107	<그림 27> Martin Margiela, Paris, 2005 F/W <i>Breaking the Mode</i> , 2007, p. 146
유연성	자연스러운 실루엣 우아한 여성성 유연한 드레이프 움직임의 주체로서 신체의 기능			
		<그림 28> Salvatore Ferragamo, Milan, 2009 S/S	<그림 29> Yigal Azrouel, New York, 2001 S/S	<그림 30> Frida Giannini, 2006 F/W <i>Breaking the Mode</i> , 2007, p. 143

29)47)는 네크라인의 디테일과 신체를 감싸는 소재의 유연성으로 단순하고 품위 있는 여성성을 나타낸다. 프리다 지안니니(Frida Giannini)가 구찌(Gucci)를 위하여 디자인한 이브닝드레스 <그림 30>48)는 유연성으로 극대화된 여성의 우아함이 나타난다. 비스코스 저지를 이용하여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물성과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고대 그리스 여신의 우아함이 느껴진다.

## V. 결론

20세기 초 여성 패션에 등장한 니트웨어는 한 세기 만에 현대 패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컬렉션에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응용하고 있다.

니트 패션에서 1980년대를 전후로 디자인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1980년 이후의 니트 패션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분석되었다.

첫째, 니트의 물리적 한계를 응용하거나 극복하는 전위와 해체의 개념으로 디자인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컴퓨터 시스템의 활용으로 미래 지향적인 미니멀리즘이 등장하고, 신소재의 개발에 의해 단순하면서 기능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지나친 기계화에 대한 반발로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를 취하는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 니트 패션의 조형성 도출을 위하여 실루엣과 신체의 표현을 중심으로 디자인 유형을 정리한 결과는 '노출된 신체'에서는 은유적 또는 직접적 노출에 의해 '관능성'과 '혁신성'이 나타났으며, '변형된 신체'에서는 수공예에 의한 입체적인 실루엣에서 '공예성'이, 확장과 왜곡된 실루엣에서 '혁신성'이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신체'에서는 신체에 의지하는 실루엣에서 우아한 '유연성'이, 조심스럽게 드러나는 신체의 곡선에서 내재된 '관능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출된 조형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예성'은 컴퓨터 시스템의 확실성과 신속성, 대중성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며, 수공예 작업의 창조 과

정에서 과거로의 향수를 경험하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이나 착용하는 사람 모두가 자연으로의 회귀나 긴장된 삶에서의 일탈을 느끼게 된다. 니트의 어원에서 나타나듯 니트는 손으로 짜는 수공예를 의미하며, 중세의 실크 양말 또한 수공예에 의한 섬세한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예성은 현대에 와서 다시 새로운 조형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20세기 초 스포티즘의 열풍과 함께 등장한 스포츠용 스웨터와 수영복, 1940년대의 트윈세트(twin-set)와 스웨터 걸(sweater girl), 1980년대의 보디 슈트(body suit)에 이르기까지, '관능성'이 중요한 조형성으로 평가 받은 니트웨어는 늘 존재해 왔다. 관능성은 노출된 신체의 과시가 트렌드화 되고 있는 현대 패션의 특성으로 인해 최근 들어 특히 주목 받고 있다. 니트 조직의 신축성에 의해 밀착된 신체나 투명한 조직을 통해 시스투의 형태로 나타나는 신체, 그리고 니트의 유연성에 의해 은유적으로 드러나는 신체는 모두 관능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1910년대에 내의의 소재로 쓰이던 저지로 제작된 샤넬의 저지 투피스나, 1960년대에 등장한 루디 게른라이히(Rudy Gernreich: 1922~1985)의 모노 키니(mono-kini), 1980년대 폼프 데 가르송의 파괴된 레이스 스웨터, 그리고 1990년대의 이세이 미야케의 A-poc는, 니트 패션에서의 '혁신성'을 대표하는 아이템이다. 이처럼 혁신성은 시대의 관습을 초월하여 표현되는 창조적인 조형성으로, 21세기에는 핸드 니팅과 기계 니팅의 조합에서 오는 구조적인 형태의 실루엣과 진보된 컴퓨터 시스템의 응용에서 발견되는 예기치 않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니트의 '유연성'은 신체를 움직임의 주체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능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스러워야 하는 현대 패션의 이중적 욕구를 만족 시키고 있다. 니트 패션의 태동기인 20세기 초, 샤넬의 직사각형 실루엣의 드레스와 마들린 비오네의 바이어스 커팅 드레스, 1940년대 클레어 맥카텔의 일명 '기저귀 정장(diaper suit)'은 모두 이러한 유연성으로 인해 완성된 스타일이다.

이처럼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은 니트 패션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반복되는 조형적 특성

의 범주 안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니트 패션의 조형성이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21세기 니트 패션의 조형성 또한 니트의 전통적인 영역 안에서 존재할 것을 예측하게 한다. 결국 니트 패션의 조형성은 늘 시대를 수용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될 뿐, 근본적으로 고유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강희명 (2004). *20세기 전반기 추상회화를 모티프로 한 니트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진 (2005). *현대 니트웨어의 니트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문희 (2009). *현대 니트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Martin, R., Koda, H. (1996). *Infra Apparel*. 이선재 역 (1996). 인프라 의상. 경춘사, p. 100.
- 3) Buxbaum, G.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London: Prestel, p. 126.
- 4) Wilcox, C. (2001). *Radical Fashion*. London: V&A, p. 31.
- 5) Baudo, F. (1997). *Yohji Yamamoto*. Paris: SCHIRMER / MOSTEL, p. 18.
- 6) 京都服飾文化研究財団 (2002). *ファッション(18世紀から現代まで)*. Tokyo: TASCHEN, p. 645.
- 7) 京都服飾文化研究財団 (1999). *Vision of body*. Kyoto: Kyoto Costume Institute, p. 91.
- 8) Buxbaum, G. *op. cit.*, p. 144.
- 9) 京都服飾文化研究財団. *op. cit.*, p. 708.
- 10) Black, S. (2002). *Knitwear in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 90.
- 11) Schmid, B. & Loscheck, I. (2001). *The Classic of Fashion*. 황현숙 역 (2001). *패션의 클래식*. 예경, p. 21.
- 12) 자료검색일 2010. 5. 7, 자료출처 <http://www.sandrabacklund.com>
- 13) 자료검색일 2010. 5. 7, 자료출처 <http://www.sandrabacklund.com>
- 14) Black, S. *op. cit.*, p. 90.
- 15) 자료검색일 2010. 6. 15,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16) Crail, J. (1993). *The Face of Fashion*. 정인희 외 역 (2001). *패션의 얼굴*. 서울: 푸른솔, p. 35.
- 17) Buxbaum, G. *op. cit.*, p.85.
- 18) 자료검색일 2010. 5. 10,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19) Gap Japan (2001). *Gap Press*. Tokyo, p. 141.
- 20) 남후남 (2005).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브레스트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9.
- 21) 바자 편집국 (2009. 12). *BAZZAR*. 서울: 가야미디어, p. 256.
- 22) 허정선 (2004). *패션 아트의 신체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자료검색일 2010. 6. 19,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24) 자료검색일 2010. 6. 25,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25) 자료검색일 2010. 6. 26,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com>
- 26) 자료검색일 2010. 6. 15,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27) 자료검색일 2010. 6. 15,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com>
- 28) 자료검색일 2010. 7. 4,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29) 柏木博. (1992). *Design of the 20th century*. 강현주·최선녀 역 (2009). *20세기의 디자인*. 서울: 서울하우스, p. 21.
- 30)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I*. 교문사, p. 52.
- 31) 자료검색일 2010. 6. 19,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32) 자료검색일 2010. 5. 7, 자료출처 <http://www.sandrabacklund.com>
- 33) 자료검색일 2010. 6. 22,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34) 京都服飾文化研究財団 (1999). *op. cit.*, p. 47.
- 35) 남후남. *앞의 책*, p. 122.
- 36) Black, S. *op. cit.*, p. 60.
- 37) 자료검색일 2010. 6. 22,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38) 김영인 외 9인 (2006). *Look(패션을 보는 아홉 가지 시선)*. 교문사, p. 28.
- 39) 자료검색일 2010. 6. 26,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com>
- 40) Black, S. *op. cit.*, p. 90.
- 41) 자료검색일 2010. 5. 7, 자료출처 <http://www.sandrabacklund.com>
- 42) Black, S. *op. cit.*, p. 127.
- 43) Spilker, K. D., Takeda, S. S. (2007). *Breaking the Mode*. Milano: Skira, p. 146.
- 44) Crail, J. *op. cit.*, p. 122.
- 45) 이미숙, 조규화 (1999). *샤넬 스타일의 변천과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패션비즈니스학회*, 3(2), p. 13.
- 46) 자료검색일 2010. 7. 3,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korea.com>
- 47) 자료검색일 2010. 6. 26, 자료출처 <http://www.firstviwe.com>
- 48) Spilker, K. D. & Takeda, S. S. *op. cit.*, p. 143.